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또한 인민무력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씌여져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

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훈장보존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럴차,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사용하시던 승용차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태상상이 모셔진 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태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돌아보시고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7월 8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관, 민주주의혁명시기관, 작전관, 군중병중관, 승리관, 중국인민지원군관, 국제지지지원관, 공훈무기관, 로획무기관, 대전해방작전전경화관을 비롯한 여러 관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전시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비롯한 16개국의 무력침범자들과 남조선 피뢰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것은 력사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침략자를 타승한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은 전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공연무대에는 경음악 《아리랑》, 녀성4중창 《그대는 어머니》, 녀성2중창 《내 마음 별에 담아》, 녀성5중창 《배우자》, 녀성2중창 《이 강산 높은 령 험한 길여우》, 경음악 《예쁜이》, 경음악과 노래 《승리자들》, 녀성3중창 《녕년의 비단치녀》, 녀성6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 녀성3중창 《들꽃 세송이》, 현악4중주 《그 품 떠나 못 살아》, 외국곡들인 경음악 《차르다쉬》, 《싸바의 너왕》, 《별의 세레나데》, 《결투》, 《승리》, 《베를로베》, 《이제 곧 날아오리》, 《장미빛을 띤 메뉴에프》, 《나의 길》, 《집사의 노래》, 《달라스》, 녀성6중창 《붉은기 필필》, 경음악과 노래 《세계동화명곡목음》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모란봉악단은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진취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것으로 일관된 개성있는 공연을 무대에 펼치였다.

불과 10여명의 연주가들이 몸예 폭배인 세련된 연주기법으로 대관현악단이 내는 장중하고 풍부하면서도 장쾌한 선율을 멋들어지게 울렸으며 젊은 가수들은 곡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여 노래를 정서적이고 흥취나게 불러 무대를 시종 격정과 환희로 달구었다.

제인 안삼불과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키였다.

전설적위인의 독창적인 음악치예에 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음악의 면모를 감동깊이 보여준 공연은 녀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시범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공연,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약동하고 생신한 공연, 내용과 형식이 새로운 경지에 오른 공연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모란봉악단의 연주가들과 가수들이 모두 전도가 양양하다고 하시면서 악장인 선우향희동무가 정말 잘한다고 치하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공연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나팔수, 기관차, 군대와 인민의 참된 길동무로서의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오가산 식물전시관 새로 건설

오가산식물전시관이 새로 건설되어 개관하였다.

오가산의 자연풍치와 조화를 이루며 특색있게 건설된 전시관에는 천연원시림의 면모를 한눈에 볼수 있게 중심에 반영화가 형성되어 있다.

반경화의 좌우에는 오가산에 있는 천수백집의 식물표본과 100여점의 종자표본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전시관 주변에는 오가산의 각이한 해발고에서 자라는 120여종에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뿌리내린 3정보의 수목원이 꾸려져 있다.

참관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가산자연보호구 분포도도 세워져 있다.

식물전시관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새로 개관된 오가산식물전시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본사기자



###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7.4공동성명리행을 거부해나시고있는 반동일분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까발하시고 공동성명의 발표가 가지는 사면적의의와 그것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력사적지위, 조국통일3대원칙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데서 나서는 리론실천문제들과 그 관철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이 로작은 조국통일위업의 근본초석을 다져준 강령적지침으로서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후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헌법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어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천명하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에 온 겨레를 힘있게 불려오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투쟁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자주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렬히 투쟁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전체적위인의 독창적인 음악치예에 의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주체음악의 면모를 감동깊이 보여준 공연은 녀성6중창 《당을 노래하노라》,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은 겨레는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정의의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와 배치되는 외세의와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약화시켜 매장배려야 한다.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열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천평화호루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은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당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계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셔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할것이다.

김희숙









